

## 조선시대 호계서원(虎溪書院)의 위상과 강학활동

김자운(金紫雲)

공주대학교 교육학과 강사 / jaunkim@hanmail.net

### <한글요약문>

호계서원(虎溪書院)은 퇴계의 선향이자 퇴계가 어릴 적 독서하던 곳이라는 연구로 퇴계를 주향하기 위해 안동지역에 최초로 건립된 서원으로, 17세기 이후 안동의 수원(首院)이자 예안의 도산서원, 경주의 옥산서원과 함께 영남지역의 대표적인 서원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 같은 호계서원의 위상과 조선후기 병호시비의 근거지라는 점에 주목하여 그동안 정치사회사 분야에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호계서원 강학에 대한 연구는 매우 소략한 형편으로 19세기의 「호계강록(虎溪講錄)」을 다룬 두 편의 연구 외에 본격적으로 시도된 바가 없다. 이는 강학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확인되는 기록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관련 인물들의 문집 등에 수록된 시, 편지, 연보, 행장 등 관련 기록과 맥락을 최대한 검토, 추적하여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호계서원 강학의 전체적인 흐름과 변화상을 추적하고자 하였다.

2장에서는 퇴계 문인들에 의해 건립된 호계서원이 퇴계의 서원관과 도학론을 충실히 계승하는 한편, 당시까지 매우 부진했던 안동향교의 교육기능을 대신하여 관학에 버금가는 위상과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퇴계의 이산원규를 충실히 계승하면서도 입원 규정에서만큼은 과거 입격자를 우선으로 규정한 호계서원의 원규, 안동부 및 안동향교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속에서 설립, 운영되었으며 호계서원의 주요 인물들이 16세기 안동향교의 운영까지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17세기까지의 강학이 과업(科業)을 목적으로 한 거점 중심으로 시행되었고, 완공된 건물의 규모가 관학의 규모를 훨씬 능가하고 있다는 점 등을 통해 적어도 16

세기의 호계서원은 관학에 버금가는 위상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3장에서는 16-17세기 강학의 전개상을 개략적으로 검토하였다. 권호문의 문집 기록을 통해 16세기 강학은 '알묘례-강학-수창시'의 순서로 이루어졌으며, 16세기 강학은 퇴계 저술의 교정 작업과 병행하여 시행되었고, 강학과 교정은 때로는 일회적으로, 때로는 며칠씩 서원에서 유숙하면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또 '누에 오르면 감발하는 효과가 있어 호연지기를 기르고 연비어락의 이치를 깨우치는 데 적합하다'고 하여 강당인 송교당 외에 유숙공간이었던 양호루가 강학 공간으로 자주 활용되었으며, 이는 '장수(藏修)와 유식(遊息)'을 아우르는 서원 강학의 목표와 의미를 드러내는 대목임을 지적하였다. 남치리의 원규에는 동몽 강학에 대한 규정이 없으나 배용길이가 16세기 강회에 참여할 때마다 '소아(小兒)와 함께 동몽재에 우거하였'으며 동몽재의 규모가 15칸이나 되었다는 점, 또 18세기 김성탁이 15세의 나이로 호계서원 거점에 참여하였다는 기록을 토대로, 16세기부터 15세 이하 동몽들을 대상으로 동몽 강학이 시행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17세기 후반 김성탁이 '전례대로 수일간 거점에 참여하여 과거문자를 익혔다'는 기록에 따르면 17세기까지 과업(科業)을 목적으로 한 거점이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4장에서는 18-19세기 강회의 변화상 및 심학적 성격과 실천적 학풍을 검토하였다. 18세기 후반으로 가면서 '알묘례-정읍례-상읍례-강독과 발문, 토론-강회 후산수 유람-파재 시 수창시'의 순서로 강회의 절차와 방식이 체계화되었으며, 1765년 대산 이상정이 이끈 심경강화를 기점으로 강회 참여자의 명단과 강회의 전말, 문답 내용을 제명록, 차록, 강회록 등의 기록으로 남기는 관례가 정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 지방관의 흥학책과 그에 대한 적극적으로 대응으로 18-19세기 강회가 활성화되었으며, 18-19세기 호계서원 강회를 주도한 인물들의 사승관계 분석을 통해 호계서원 강회는 '퇴계로부터-학봉 김성일-갈암 이현일-밀암 이재-대산 이상정'으로 이어지는 학맥 형성에 핵심적인 매개체가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18-19세기에 가장 많이 활용된 강회의 주요 텍스트는 심경이었으며, 강회에서 공부한 내용을 더욱 궁구하여 체득하고 일상생활의 언어와 동작에서 실천하는 자만이 진정한 '강학인'이라 강조하고, 19세기 붕당의 폐해와 유림의 분열상을 극복하기 위한 해법을 서명(西銘)에서 찾고 일상에서 이일분수의 실천을 강조한 19세기 강회 등을 통해 이 시기 호계서원 강회의 특징과 경향성이 심학과 실천적 학풍을 지향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호계서원 강학의 전체적인 흐름과 변화상은 개괄적으로 추적하였으나, 강학의 가장 핵심에 해당하는 강회의 주요 내용과 문답 기록까지는 미처 분석하지 못하였다. 본고에서 수집한 자료 외에 향후 관련 자료를 좀 더 추적, 보완

하여 본고에서 미처 수행하지 못한 강회의 주요 내용과 문답 기록에 대한 분석은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

**주제어:** 廬江書院, 虎溪書院, 講學, 安東府, 安東鄉校, 退溪學, 大山 李象靖

## 1. 서론

호계서원(虎溪書院)은 퇴계의 선향이자 퇴계가 어릴 적 독서하던 곳이라는 연고로 퇴계를 주향하기 위해 안동지역에 최초로 건립된 서원이다. 김성일, 유성룡, 김언기, 김극일, 구봉령, 조목, 남치리 등 문인들의 주도하에 퇴계 문인이자 당시 안동부사였던 권문해의 적극적 지원으로 1575년 여강서원(廬江書院)이라는 이름으로 건립, 이듬해 퇴계의 위패를 봉안하였다.<sup>1)</sup> 이후 1620년 김성일과 유성룡을 배향하고,<sup>2)</sup> 1676년 호계서원으로 사액된 뒤<sup>3)</sup> 17세기 이후 안동의 수원(首院)이자 예안의 도산서원, 경주의 옥산서원과 함께 영남지역의 대표적인 서원으로서 위상을 확립하였다.<sup>4)</sup>

이처럼, 호계서원의 위상 및 조선후기 병호시비 전개와 영남학파의 분화과정에서 호계서원이 담당한 역할에 주목하여 그동안 정치사회사 분야에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김성일과 유성룡의 합향 과정과 위차 논쟁, 남치리의 추향 논쟁이 조선후기 남인의 정치적 입지 변동, 영남 퇴계학의 분화 및 도통론 확립 과정에서 지니는 의미가 밝혀지고,<sup>5)</sup> 병호시비의 전개 과정에서 안동 유림의 정치적 동향 및 병론과 호론이 분화된 배경,<sup>6)</sup> 그리고 의성 김씨와 풍산 유씨 두

1) 『廬江志』 권 1, 「立院事實」.

2) 『廬江志』 권 1, 「追祀事實」.

3) 『숙종실록』 권 5, 2년 2월 2일 갑인.

4) 호계서원의 창건, 사액, 중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김학수의 논문 II장 「廬江書院과 嶺南學統-17세기 초반의 廟享論議를 중심으로-」, 『朝鮮時代의 社會와 思想』, 조선사회연구회, 1998)을 참조.

5) 김학수, 앞의 논문.

6) 설석규, 「퇴계학파의 分化와 屏虎是非(I)-屏派·虎派의 세계관 형성과 분화」, 『한국사상의 재조명』, 한국국학진흥원, 2007; 설석규, 「退溪學派의 分化와 屏虎是非(II)-廬江(虎溪)書院

문중의 대응 양상과 차이<sup>7)</sup>, 19세기 안동 유림의 사상적 동향<sup>8)</sup>,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호계서원의 원장과 그 가문의 구성원을 중심으로 한 안동 사족의 분화 과정에 대한 분석<sup>9)</sup> 등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서원의 위상과 퇴계 문인들이 16세기부터 조선후기까지 건립과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점으로 미루어볼 때, 호계서원에서는 설립 초기부터 강학활동 역시 매우 활발히 시행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호계서원 강학에 대한 연구는 매우 소략한 형편으로 19세기의 「호계강록(虎溪講錄)」을 다룬 두 편의 연구 외에 본격적으로 시도된 바가 없다. 권오영<sup>10)</sup>은 퇴계학파의 분화 과정에서 호계서원과 고산정사의 강회를 중심으로 19세기 안동 유림이 퇴계학의 적진을 어떤 방식으로 계승, 확립하고자 하였는지를 사상적 특징과 함께 조명하고, 최광만<sup>11)</sup>은 호계강회의 강학 유형과 방식, 강학 정신에 대한 교육사적 해석을 시도하였다. 그런데 두 편의 연구 모두 대상 자료와 시기가 주로 19세기에 한정되어 있어 호계서원 강학활동의 전모를 드러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처럼 호계서원의 위상에도 불구하고 강학활동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부진했던 것은 호계서원 강학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확인되는 기록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소개된 호계서원 강학에 관련된 단행본 자료는 한국국학진흥원과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간행한 1856년의 심경강회 기록인 「호계강록」이 유일하다. 그

置廢 顧末-, 『退溪學과 韓國文化』 45, 2009; 이재현, 「순조(純祖)대(1800~1834) 안동지역(安東地域) 유림(儒林)의 정치적 동향」, 『퇴계학과 유교문화』 59,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16; 김형수, 「조선후기 영남지역 여론 형성과 정치참여: 통문과 상소」, 『조선시대 고문서 자료집(I)-통문과 상소』, 한국국학진흥원, 2007」을 참조

7) 申爽鎬, 「屏虎是非に就いて」, 『靑丘學叢』 1~3, 1931) 및 김명자, 「조선후기 安東 河回의 豊山柳氏 門中 연구」, 경북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9.

8) 권오영, 「19세기 안동유림의 학맥과 사상」, 『영남유림의 사상과 활동』, 돌베개, 2003 및 「19세기 영남유림의 사상적 동향」, 『민족문화논총』 제70집, 2018.

9) 김영나, 「16~18세기 안동지역 사족의 호계서원(虎溪書院) 운영」, 『조선시대사학보』 73, 조선시대사학회, 2015.

10) 「19세기 영남유림의 강회와 학술활동」, 『조선시대 사회의 모습』, 집문당, 2003; 「19세기 안동유림의 학맥과 사상」, 『영남유림의 사상과 활동』, 돌베개, 2003; 「19세기 영남유림의 사상적 동향」, 『민족문화논총』 제70집, 2018.

11) 최광만, 「19세기 서원 강학활동 사례 연구: 『호계강록』을 중심으로」, 『교육사학연구』 22권 1호, 교육사학회, 2012.

의 단행본 자료로 1765년 대산(大山) 이상정(李象靖)이 주도한 대학, 심경 강회 관련 기록으로 한국국학진흥원에 소장된 「여강기문록(廬江記聞錄)」이 있다. 「여강기문록」은 당시 강회의 진말부터 문답 내용까지 매우 상세히 수록하고 있어 그 자료적 가치가 매우 높으나 그동안 학계에 제대로 소개된 적이 없다. 목록과 해제만 제공하고 원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1차 자료에 대한 접근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그 외 자료는 매우 파편화된 형태로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어 일일이 검토하지 않는 한 파악이 쉽지 않다. 이에 본고에서는 관련 인물들의 문집에 수록된 시, 편지, 연보, 행장 등을 포함하여 강회 관련 기록과 맥락을 최대한 검토, 추적하여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호계서원 강학의 대체적인 흐름과 변화상을 개괄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퇴계의 이산원규를 저본으로 하여 1576년 남치리가 작성한 호계서원 원규와 이산원규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안동부 및 안동향교와 호계서원의 관계를 통해 16세기 호계서원의 위상과 관학적 성격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16-17세기 강학의 전개상을 개괄적으로 검토한 뒤, 4장에서는 심학적 특징과 실천적 학풍을 중심으로 18-19세기 강회의 변화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 2. 16세기 호계서원의 운영과 위상

호계서원은 1573년 백련사 터에 건립을 시작하여 1575년에 건물을 완성, 이듬해 2월에 퇴계의 위패를 봉안하였다. 이 때 봉안문은 유성룡, 상항축문은 조목이 쓰고, 건물의 당호는 구봉령이 지었으며 글씨는 홍사제가 썼다. 완공된 건물은 대문 밖 누문(樓門)까지 포함하면 총 100칸이 넘는 규모였다.<sup>12)</sup>

초대 원장에는 퇴계 문인 김언기(金彦璣, 1520-1588)<sup>13)</sup>가 추대되었다. 그는

12) 『江左集』 권 3, 詩, 「虎溪養浩樓 次朱鶴林韵」.

13) 본관은 광산, 자는 중온(仲溫), 호는 유일재(惟一齋), 이황의 문인으로 1567년(명종 22) 생원시에 합격하였다. 일찍이 구봉령과 함께 청량산에 들어가 10년을 기약하고 글을 읽었다. 1561년에 가야에 서당을 짓고 평생 강학에 종사하였는데 사방에서 모인 생도들이 많아 다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문인을 길러냈다. 남치리, 정사성, 권위, 박의장 등 192명이

1573년에 동주가 되어 백련사를 훼손하고 불상을 강에 던진 뒤 지방관에게 재정 지원을 요청하는 등 동문들과 함께 서원 창건을 실질적으로 주관하였으며, 건립 이후에는 안동부사에게 사액의 협조를 촉구하는 상서(上書)를 올리고, 도산서원 및 호계서원 유생들과 상의하여 서원의 규약을 마련하였다.<sup>14)</sup> 그러나 이 때 김언기가 작성한 규약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아마도 화재로 그의 유문과 유적들이 상당부분 타버렸다고 하는데 이 때 소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전하는 원규는 1576년 남치리가 권우 등과 상의하여 제정한 것<sup>15)</sup>으로 『영가지』 서원조에 전문이 수록되어 있다.<sup>16)</sup> 퇴계의 이산원규를 저본으로 하되, 이산원규에 없는 입원 규정과 원임 구성에 대한 조항 몇 가지를 새로 추가하였다. 원임은 도유사·하유사·재유사 체제로 사리가 있고 행의로 추앙받는 자 1인을 도유사, 근처에 사는 품관 2인을 하유사, 입원유생 중 2인을 재유사로 삼도록 하였다. 입원유생의 선발은 최소 20인 이상의 원유가 모여야만 천거할 수 있었다. 선발 기준은 생원, 진사, 입격자의 경우 인원 제한을 두지 않고 의론을 거쳐 선발하고, 미입격자는 1년에 한 차례만 선발하되 상액(常額)이 최대 10인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처럼 퇴계 문인들이 작성한 원규의 입원 규정이 과거 입격자를 중심으로 규정된 것은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과업지소로 전략한 서원을 비판하며 ‘도학처나 강학처’로 자리매김하고자 했던 퇴계의 서원관보다, 서원을 국가의 관리를 길러내고 과업을 준비시키기 위한 관학의 연장선에서 ‘존현처나 과업지소’로 여겼던 주세붕의 서원관에 가깝기 때문이다.<sup>17)</sup> 이는 안동이라는 고을의 지역적 특수성, 안동부 및 안동향교와 호계서원의 관계라는 맥락 속에서 해석될 필요가 있다.

『문인록』에 수록되었고, 이광정(李光庭)은 행장에서 ‘북주의 문학 흥성은 선생의 창도에 힘입은 바 크다라고 평가한 바 있다(『惟一齋先生實記』, 권 2, 부록, 행장).

14) 『惟一齋先生實記』, 권 2, 부록, 행장; 권 2, 부록 「遺事」; 권 1, 書, 「上府伯權草淵文海」.

15) 『實趾先生文集』, 實趾先生年譜, 권 2, 書, 「答權定甫四月初七日」.

16) 『永嘉誌』 권 4, 「書院」, 廬江書院.

17) 퇴계의 서원관이 ‘講明道學을 위한 공부론’의 관점에 초점을 두었다면, 주세붕의 서원관은 ‘帝王學과 治用論’의 관점에 초점을 두고 있다(김자운, 「퇴계의 서원관과 조선 후기 소수서원 講學의 변화」, 퇴계학논집, 제18호, 2016). 그 외 퇴계와 주세붕의 서원관의 차이에 대한 연구는 정만조, 『朝鮮時代 書院研究』, 집문당, 1997, 23-47쪽을 참조.

주지하다시피 안동지역은 사족의 영향력이 유난히 강한 지역이었다. 16세기 안동에서는 이족과 사족의 분화가 거의 완결단계에 이르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사족들은 그들에게 적합한 새로운 형태의 향촌 통제기구를 설립,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그 재편 과정에서 출현한 기구가 바로 서당과 서원이었다. 안동 최초의 서원인 여강서원이 설립되기 이전 16세기부터 안동의 사족들은 이미 서당을 왕성하게 설립하며 교육의 중심처로 활용하였다. 아래 표 1에서 보듯이, 17세기 초반에 간행된 영가지에 수록된 서당의 수만 해도 22개에 달한다. 이들 서당은 상당수가 후일 서원으로 이행, 발전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의 강학활동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16세기 서당 설립을 주도했던 인물들은 모두 당시 안동의 지배 사족으로서 구봉령, 권대기, 권호문, 김언기, 김수일 등 퇴계의 문도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즉, 16세기 안동 사람의 일반적 분위기는 명문사제들을 대상으로 서당과 정사를 이용하여 촌락단위로 이들을 교육하는 것이 관례였고, 교육 수준 또한 매우 높아 여타 고을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sup>18)</sup>

표 1. <『영가지(永嘉誌)』에 수록된 안동 지역 서당 목록>

서당명	건립연도	설립자	소재지
豊岳書堂	1563	權景經	풍산현 북쪽1리
陽坡書堂	미상	柳致明	府의 동쪽 50리
道生書堂	1604	裒龍吉	임하현 북쪽 본골리
八耦書堂	16세기 후반	裒龍吉	임하현 북쪽 검암
養正書堂	1576	具鳳齡	와룡산 서쪽
龍泉書堂	1600	權復亨	용정산 동쪽 붙아촌 뒤
伊溪書堂	16세기 후반	權大器	府의 북쪽 이화어촌 위
西礪書堂	16세기 초	李漢	府의 북쪽 서가촌
芝陽書堂	1578	鄭士誠	府의 북쪽 말마우(馬岩)
鏡光書堂	1568	權好文	서후면금계마을 동쪽
佳野書堂	1561	金彥璣	府의 동쪽 가야촌 남쪽
面提書堂	미상	縣人	일직현 서쪽2리
龍峽書堂	미상	미상	임하현 서쪽 나천촌1리
龜潭書堂	16세기 후반	柳景深, 張文輔, 金守一,	일직현 귀미촌 북쪽5리

<sup>18)</sup> 정순우, 「조선조 영남 지역 교생신분과 평민층의 교육참여」, 『한국문화사대계』, 영남대학교 출판부, 2000.

		李中立, 李種善 등.	
鳳山書堂	16C 말-17C 초	李介立	감천현 서쪽 진장동 봉대 아래
靑城精舍	1573	權好文	府의 서쪽 청성산
寒棲精舍	1551	權好文	府의 서쪽 송파리
石門精舍	1587	金誠一	府의 서쪽 성산
玉淵精舍	1586	柳成龍	하회 빈연
謙岳精舍	1567	柳雲龍	풍산 하회 빈연
遠志精舍	1573	柳成龍	府의 서쪽 하회 옥연
玉屏書齋	1591	金誠一	임하현 낙연

이와 같이, 호계서원의 임원 규정이 과거 입격자 위주로 규정된 배경은 첫째, 16세기 안동 사족의 동향, 활발한 서당 설립과 운영을 토대로 한 높은 교육수준 등 16세기 안동 지역의 특수성이라는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고려할 것은 지방관 및 안동향교와 호계서원의 관계이다. 16세기 설립 초기부터 호계서원은 안동부와 매우 긴밀한 협력 관계 속에서 설립, 운영되었다는 점이다. 서원 건립이 시작된 1573년 때마침 안동부사로 부임한 사람이 바로 퇴계 문인 권문해였고, 공사가 시작된 지 3년 만에 100칸이 넘는 실로 방대한 규모의 서원이 완공될 수 있었던 것은 안동부사 권문해의 전폭적인 행, 재정적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안동의 지배 사족으로서 퇴계 문도들은 호계서원의 건립과 운영 뿐 아니라 16세기 안동향교의 운영까지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었다. 이는 16세기 안동향교의 운영 주체였던 임원 명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579년 3월에 작성된 「학규」와 1581년에 작성된 「교중완의(校中完議)」에 수록된 안동향교의 당장(堂長) 김수일(金守一)은 김성일의 중형으로 1576년 호계서원 원장을 역임하였고, 권득중(權得重)은 유성룡의 고제, 이종강(李終綱)은 진성 이씨 가문 등으로 퇴계 문인 혹은 그와 관련된 인물로 안동의 대표적인 지배사족이었다.<sup>19)</sup>

16세기 호계서원과 안동향교의 협력적 운영은 김언기에 이어 두 번째로 원장을 맡은 권호문(權好文, 1532-1587)의 활동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호계서원의 원장 명단을 기록한 『호계임록(虎溪任錄)』에는 1576년 이후 10년간의 명단이 빠져 있는데 송암집 연보에 따르면 권호문은 1576년 8월에 여강서원 동주가 되어 준도

<sup>19)</sup> 안동향교의 學規(1579)와 校中完議(1581)의 원문은 안승준, 「자료소개-安東鄕校 學規類」, 『고문서연구』 제6집, 한국고문서학회, 1994, 부록에 수록되어 있다.

사를 배알하고 향례를 행한 뒤 1583년 무렵까지 동주를 역임한 것으로 보인다.<sup>20)</sup> 권호문은 1577년과 1579년 가을에 안동부사 서익(徐益)의 요청으로 안동향교 유생 고강(考講)에서 시관(試官)을 담당하였다.<sup>21)</sup> 또한 고강을 마친 뒤에는 교생안이 채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다음과 같은 시를 지어 안동부사의 흥학활동 및 향교 유생들을 독려했다.<sup>22)</sup>

어찌 성현 시대의 학제가 무너졌다고 걱정하랴 聖代誰憂學制頽  
 해액한 여러 인재들을 다시 가려 보충했네 申修解額揀群才  
 공자 문하에도 도포 입은 삼천 제자 가득했듯이 孔門縫掖三千子  
 지금의 조정에도 많고 많아 다시 성대하리라 濟濟今朝更盛哉

이 때 ‘교생안이 채워졌다는 소식을 듣고’에서 ‘충교안(充校案)’은 권호문이 고시(考試)한 고강에서 낙강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즉, 당시 고강이 형식적으로 수행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향교에서 수행된 그간의 교육성과를 실질적으로 평가하였고 낙강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자 그간의 성과를 치하하기 위한 의미로 시를 지어준 것이 아닌가 해석된다. 실제로 불과 10년 전인 1567년까지만 해도 안동부사 윤복(尹復)이 향교의 중건을 마치고 쓴 중수기에 따르면, “재방(齋房)이 명광(明曠)하고, 당루(堂樓)가 확 트였으나 제생이 경서를 가지고 배우러 오는 자가 전혀 없고 스승과 선비들은 자리에 의지한 채 강학하지 않는다”<sup>23)</sup>며 당시 향교 강학활동의 부진상을 탄식한 바 있다.

기존의 학령이 있었음에도 1579년 안동향교 당장 김수일 등이 학규를 새로 마련하고 운영 세칙을 담은 완의를 새로 작성한 것은 이처럼 이전까지 아무도 강학하지 않던 향교 교육의 부진상을 극복하고 향교 운영의 제반 사항을 쇄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sup>24)</sup> 이처럼 호계서원 원장으로서 권호문은 서원 뿐 아니라 안동

20) 『松巖集』 별집, 「松巖先生年譜」, 선조 9년 병자.

21) 『松巖集』 별집, 「松巖先生年譜」, 선조 10년 정축, 선조 12년 기묘.

22) 『松巖集』, 권 3, 시, 「聞試講儒生充校案」.

23) 『永嘉誌』, 「鄉校」, 「隆慶원년 향교중수기」.

24) 정순우의 연구(앞의 논문)에서는 1579년에 작성된 학규와 함께 수록된 학령이 같은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 때의 학령은 설월당 김부륜이 1585년 전라도 동북현감으로

향교의 운영과 교육에도 지대한 관심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었다. 또한 안동부사 역시 조선후기까지 호계서원에서 강회가 열릴 때면 수시로 서원을 방문하여 함께 강론에 참여하였으며 서원 운영에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 제공하였다. 권호문이 자리를 비웠을 때 부사 서익이 서원을 방문하자 권호문은 대신 시를 지어 보내고,<sup>25)</sup> 1605년 대홍수로 여강서원이 완전히 유실되었을 때 퇴계 문인 김득은 안동부사로 부임하여 경상감사에게 재난상황을 보고하고 협조를 촉구하였으며, 자신의 녹봉을 기부하여 이듬해 중건을 완성하였다.<sup>26)</sup> 1718년에는 부사 권이진(權以鎭)이 이재(李裁)의 강회에 참여하여 강론하고 돌아간 뒤에도 서신을 통해 토론을 주고받았으며,<sup>27)</sup> 1730년대 초 경상감사 조현명이 권학절목을 반포, 시행할 때 호계서원은 안동향교와 함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sup>28)</sup>

마지막으로 안동부와의 관계 속에서 16세기 호계서원이 차지하는 위상은 설립 당시 서원의 규모로 미루어 짐작해볼 수 있다. 1575년에 완공된 서원의 건물은 묘우인 존도사(尊道祠) 6칸, 신문(神門) 3칸, 신주(神廚) 5칸, 동서협실을 포함하여 강당인 숭교당(崇敎堂) 15칸, 동서재인 구인재(求仁齋)와 명의재(明義齋) 각 4칸, 대문인 진학문(進學門) 1칸, 동몽재 15칸, 유사방 5칸, 재주(齋廚) 10칸, 보상고(寶上庫) 15칸으로 총 92칸이다.<sup>29)</sup> 또 진학문 밖에는 양호루(養浩樓)라는 누문(樓門)이 있었다. 이는 본래 백련사 옛터에 있던 침벽루(枕碧樓)라는 누문이었는데, 백련사를 훼손하면서 누문을 다시 짓고 맹자의 ‘양호(養浩)’에서 따와 양호루라 이름하였다.<sup>30)</sup> 총 10칸으로 지어진 양호루까지 더하면 건물의 규모는 총 102칸에 달하는 실로 엄청난 규모였다.

이를 안동향교의 건물과 비교해보자. 1567년 중건 당시 안동향교는 계수관급

부임하였을 때 작성한 「복천향교학령」과 내용이 동일하다(『雪月堂集』, 권 4, 잡저, 「福川鄉校學令」). 따라서 안동향교의 학령은 안동향교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라 김부륵이 작성한 이후 전국 향교에 동일한 내용을 배포한 것으로 보인다.

25) 『松巖集』 별집, 권 1, 시, 「三月晦日 聞城主送春廬江院樓 獨吟呈一首」.

26) 『栢巖集』, 권 7, 「年譜」, 만력 30년 을사.

27) 『密菴集』, 권 24, 附錄, 「年譜」, 숙종 44년 戊戌, 『有懷堂集』, 권 7, 書, 「與李院長裁」.

28) 『顧齋集』, 권1, 書, 「答趙方伯」; 같은 책, 권 7, 雜著, 「奉諭諸生文」.

29) 『永嘉誌』 권 4, 「書院」, 廬江書院.

30) 『江左集』 권 3, 詩, 「虎溪養浩樓 次朱鶴林韻」.

향교로 성균관과 동일한 규모로 지을 수 있도록 조정의 허락을 받아 대대적인 규모로 중건되어 영남을 통틀어 가장 큰 규모였다고 한다. 『영가지』에 따르면, 당시 중건된 향교의 건물은 대성전 9칸, 동서무 각 8칸, 명륜당 10칸, 동협실 2칸, 서쪽 양방(涼房) 1칸, 동서재 각 5칸, 문루 청아루(菁莪樓) 9칸, 외대문 1칸이었다. 그 외 재주과년방(齋廚課年房), 보편고(寶便庫), 교관이 거주하는 교아(校衙)가 있었는데 건물의 칸수까지는 기록되지 않았다.<sup>31)</sup> 규모를 알 수 없는 창고와 교아, 재주과년방을 제외하면 총 58칸, 어림짐작으로 누락된 칸수를 더하더라도 70-80칸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중건된 안동향교와 비교하더라도 100칸을 넘는 호계서원의 규모는 관학의 규모를 훨씬 능가하고 있다.

이처럼, 설립 당시 호계서원의 건물이 대규모로 건립된 의도를 과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이는 퇴계 문인들에 의해 건립된 호계서원이 퇴계의 서원관과 도학론을 충실히 계승하는 한편, 당시까지 매우 부진했던 안동향교의 기능을 대신하거나 적어도 보완적으로 수행하고자 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퇴계의 이산원규를 충실히 계승하면서도 입원 규정에서만큼은 과거 입격자를 우선으로 규정한 호계서원의 원규, 안동부 및 안동향교와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설립, 운영되었으며 호계서원의 주도 세력이었던 퇴계 문도들은 16세기 안동향교의 운영까지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후술하겠으나 17세기의 강학이 科業을 목적으로 한 거점 중심으로 시행된 점, 완공된 건물의 규모가 관학의 규모를 훨씬 능가하고 있는 점 등은 적어도 16세기의 호계서원이 당시 부진했던 향교교육을 대신하여 관학에 버금가는 위상과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3. 16-17세기 강학의 전개

현재까지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호계서원 강학 관련 자료로는 원규 외에 17세기 거점 활동 및 18-19세기에 시행된 몇 차례의 강회 관련 기록이 확인된다. 그

31) 『永嘉誌』, 「鄉校」.

의 16세기에는 강학과 관련된 상세한 기록은 발견되지 않지만 시문과 연보 등에 나타난 단편적인 기록을 통해 당시 동몽재의 운영상, 강학에 활용된 공간, 서원에서 이루어진 퇴계 및 문인들의 저서에 대한 교정 작업과 연계하여 시행된 강학, 강학에 앞서 시행된 알묘례, 강학을 마칠 때 남긴 차운시 등 16세기 강학과 관련된 정보를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16세기 강학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 것은 당시 강학 제도가 체계적으로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강학에 대한 규정도 없었고 강학의 개설 시기나 기간도 일정한 규칙 없이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18세기 대산 이상정의 심경강회를 기점으로 강회의 세부 절차가 점차 체계화되고 참여자의 명단 및 강회의 전말, 교재, 문답 내용 등을 상세하게 기록으로 남기는 등 강회 제도가 차츰 갖추어지기 시작하였다. 현재까지 확인된 호계서원 강학활동 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lt;호계서원 강학 현황&gt;

강학활동	원장, 講席(참여자)	연도	자료
院規	南致利	1576	『永嘉誌』
	南致利, 權宇가 院中儀節及儒生入院之 規를 제정	1576	『貞趾先生文集』
講學	權好文	1583	『松巖集』
講學, 『退溪集』 교정	趙穆, 金誠一	1587	『月川集』
童蒙講學	裊龍吉	1593	『琴易堂集』
居接	金聖鐸	1698	『霽山集』
太極圖說 講會	洞主 李栽	1718. 6	『有懷堂集』 『密菴集』
近思錄講會	近思錄 講會(金聖鐸, 李櫟)	1728. 7	『霽山集』
講會	洞主 李栽	1729. 春	『大山集』 『霽山集』 『密菴集』
西銘 太極圖說 講會	훈장 李櫟	1731	『顧齋集』
中庸講會	金岱鎭	1841. 8	『訂窩集』
大學·心經講會	洞主 金宅東 講席 李象靖	1765. 윤2. 10- 17	『廬江記聞錄』 『下枝遺集』 『大山集』

			『隨得錄』 『壺谷集』
心經講會	洞主 鄭來成 講席 柳長源	1789. 7. 16-22	「廬江講會錄」 『兩阜集』 『訂窩集』 『思軒集』
心經講會	(金垞)	1801. 7	『龜窩集』
講會(태극도설, 근사록, 중용, 대학후문)	洞主 李秉遠(金岱鎭)	1831. 11(20일간)	『訂窩續集』 『所菴集』 『訂窩集』
心經講錄	講席 柳致明	1856. 11. 14-21	『玉山講義』, 虎溪書院講錄 『古文書集成』49, 虎溪講錄
西銘講會	훈장 金岱鎭	1863. 秋	『訂窩集』
玉山講義 講會	金興洛	1891. 5	『西山先生文集』
廬江講會	(의성김씨 유일재 후손)	1892. 5	『日記』, 右五月廬江講會韻

서원의 건물이 완공되고 퇴계의 위패를 봉안하기 한 해 전인 1575년 권호문은 권우와 함께 여강서원에서 강학하고 퇴계의 『송계원명이학통록(宋季元明理學通錄)』을 교정하였다.<sup>32)</sup> 이 책의 교정이 완료되자 권호문이 발문을 짓고 이듬해 여강서원에서 간행하였다. 『이학통록』의 교정, 간행 작업과 퇴계를 모신 여강서원의 완공이 한꺼번에 성사되자 두 사람은 이를 기뻐하며 기념하기 위해 서로 차운시를 주고 받았다.<sup>33)</sup> 이후에도 퇴계 저서나 문인들의 저서 중 많은 책들이 호계서원의 교정 작업을 거쳐 간행되었다. 1578년에는 퇴계의 『계몽전의(啓蒙傳疑)』가 간행되고, 1587년에는 김성일, 조목을 중심으로 여강서원에 모여 『퇴계집』을 교정하였다.<sup>34)</sup> 문인들의 저서로는 1649년 『학봉집』, 1726년 김성일의 연보를 간행하고<sup>35)</sup>, 1782년에는 김성일의 7대손 김주국, 김주운 등이 대산 이상정과 함께 목판으로 『학봉속집』 5권 3책을<sup>36)</sup>, 1785년에는 퇴계의 『주자서절요』에 간재 이덕홍

32) 『松巖集』 별집, 「松巖先生年譜」, 선조 8년 을해.

33) 『松巖續集』, 권 4, 시, 「次呈權上舍定甫」.

34) 『月川集』, 「年譜」, 만력 15년 정해.

35) 『鶴峯集』, 부록 권 1, 「年譜」.

36) 『大山集』, 권 15, 書, 「與鳳停寺會中 辛丑」.

이 주석을 붙인 『주자서절요강록』을 밀암 이재가 수정, 증보한 『주서강록간보(朱書講錄刊補)』를 간행하였다. 교정 작업은 일회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며칠씩 유숙하며 하기도 하였는데, 16세기에는 강학이 정기적으로 개설되거나 제도적으로 체계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교정모임과 강학은 특별히 구별되지 않은 채 연계된 방식으로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1581년과 1583년 봄에는 원장 권호문이 존도사를 배알한 뒤 유생들을 이끌고 강회를 열었다. 1581년에는 강회를 마치면서 공부의 방향을 제시하는 다음과 같은 시를 지어 서원 유생들에게 보여주었다.<sup>37)</sup>

날마다 내 몸을 세 가지로 반성한 것  
공부함에 이것을 지침으로 삼았네.  
시우 같은 공자의 문하에서 누가 교화를 입었는가?  
춘풍 같은 정자 문하에 다시 참여하기 어렵네.  
글 읽는 소리는 거문고 타는 듯하고,  
지극한 교훈은 좋은 말씀뿐이라.  
늙은 내가 병축과 같음을 누가 알랴?  
어두운 밤길 해매니 부끄러움 절로 많네

1583년의 강회는 문루인 양호루(養浩樓)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양호루는 강회와 유식 공간으로 자주 활용되었는데, 이 때 권호문은 누에 오르면 절로 감발하는 것이 바로 호연지기를 기르고 연비어락의 이치를 깨닫는 것이라며 유식 공간이자 교육 공간으로서 양호루의 의미를 깨우치는 다음과 같은 시를 지어 유생들에게 보여주었다.<sup>38)</sup>

한 기운이 천지 가운데에 감돌아                    一氣扶輿天地中  
호연한 기상 시작도 없고 끝도 없네                浩然無始又無終

37) 『松巖集』 별집, 『松巖先生年譜』, 선조 14년 신사, “吾身日省在曾三 爲學工夫是指南 時雨孔門誰得化? 春風程座更難參 餘音恰似瑤琴奏 至訓何徒玉屑談 老學誰知同秉燭? 冥行撻植自多慙”.

38) 『松巖集』 별집, 『松巖先生年譜』, 선조 16년 계미; 『松巖集』, 권 3, 시, 「題廬江養浩樓改前詠 癸未」.

흐르는 물 우뚝한 산 고금에 한결 같고	水流山峙古今樣
뛰는 물고기 나는 솔개 위아래가 같네	魚躍鳶飛上下同
누가 잘 기르라는 맹자의 가르침 따랐던가	善養誰遵鄒聖訓
확충하여 송나라 현인의 공효 본받아야지	擴充宜效宋賢功
누에 오르면 감발하는 것이 바로 강대함이니	登樓感發斯剛大
우리에게 웅장한 기운을 많이 알려주네	爲報吾儕幾箇雄

그 밖에 금궁주(琴宮奏)<sup>39)</sup>의 시에 권호문과 배용길(裴龍吉, 1556~1609)<sup>40)</sup>이 여강서원에서 차운한 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권호문이 강학하던 시기 금궁주와 배용길도 참여했던 것으로 보인다.<sup>41)</sup> 또 배용길은 사마시에 합격한 이후에도 서원 강학에 참여할 때마다 ‘성현공부 모름지기 동몽재에서 한다’거나 ‘동몽재에 우거하였다’<sup>42)</sup>는 기록이 여러차례 발견되는데 언젠가 강회를 위해 또 동몽재에 우거하면서 지은 다음 시에서 30세에 진사가 된 그가 동몽재에 우거한 이유를 알 수 있다.

동몽재에 우거하다	寓童蒙齋 <sup>43)</sup>
남이 말하기를 그대 지금 이미 백발인데	人曰渠今已白頭
어찌하여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는가하네	胡爲來與小兒遊
내가 말하기를 다행히 동몽계에 의탁하였으니	我言幸托童蒙契
재중에서 윗자리의 부끄러움 면하리라하였네	應免齋中座上羞

당시 여러 벗들과 모여 강론하였는데, 〈회강록〉이 있다. 時與諸友會講 有會錄

39) 琴宮奏는 琴鳳祥의 장자로 장사랑훈도를 지냈고 부친이 권호문에게 다섯 아들의 이름을 청하여 권호문이 이름을 지어준 바 있다(『松巖集』, 권 5, 「說琴宮操大調字說」).

40) 배용길은 1585년에 사마시에 입격하여 성균관에 들어갔으니 1585년 이전이었을 것이다. 배용길은 김성일의 문인으로 유성룡, 조목, 남치리 등을 존유하고 1585년 사마시에 입격, 1602년 별시문과에 급제하였으며 1605년 대홍수로 여강서원을 이전할 때 존도사 상량문을 지었다(『琴易堂集』, 권4, 잡저, 「廬江書院尊道祠移建上梁文」).

41) 『松巖集』續集, 권 4, 시, 「次琴秀才 宮奏」; 『琴易堂集』, 권 1, 시, 「廬院和琴大調 宮奏」.

42) 『琴易堂集』, 권 1, 시, 「廬院和琴大調 宮奏」, “聖功須向蒙齋做 ... 時寓童蒙齋”.

43) 『琴易堂集』, 권 1, 시.

그러나 이 때 회강록은 문집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대신 1593년에 지은 다음 시가 이 때 강회에서 만난 벗들에게 보낸 시로 추정된다.

여강서원에서 동행한 여러 벗들에게 주다 江院呈同行諸友 二首 癸巳<sup>44)</sup>

한 필 말로 여산을 찾아드니	匹馬尋廬岳
함께한 이 모두가 명사일세	聯鑣儘勝流
여뀌꽃 붉게 핀 언덕을 막 지나자	才經紅蓼岸
또 갈매기 노니는 물가로 들어가네	又入白鷗洲
맑은 강물 십 리에 뻗쳐 흐르고	十里澄江遠
들쭉날쭉 봉우리는 가을에 더 촘촘하네	三秋亂嶂稠
밤 짓는 연기가 저녁에 피어올라	炊煙仍夕起
얼기설기 시인의 누대를 감싸네	縷縷護詩樓

푸른 산이 비너처럼 솟았고	碧嶂簪并抽
맑은 강물 옥처럼 흐르네	清江玉欲流
골짜엔 송백이 들쭉날쭉	崎嶇松柏峽
물가엔 난초가 일렁일렁	蕩漾蕙蘭洲
오랜 이별에 소식이 끊겨도	久別音書斷
만나면 담소가 정답겠지	相逢笑語稠
부질없이 좋은 때를 기다리느라	區區望辰意
밤마다 높은 누에 오르겠네	夜夜倚危樓

1698년에는 과업을 목적으로 한 거점이 시행되었다. 당시 15세 김성탁(金聖錫, 1684-1747)이 거점에 참여하여 과거문자를 익혔고 전례대로 수일간 거점하였다는 기록에 따르면,<sup>45)</sup> 이전에도 호계서원에서 여러차례 거점이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때 거점에 참여했던 김성탁은 의성 김씨, 갈암 이현일의 문인으로 47세가 되었을 때 경상감사 조현명이 서지(書贄)를 보내 제자의 예를 행하고 배움을 청하였으나 정중히 사양하고 예물을 돌려보냈다. 권학절목이 반포된 1731년에는 조현명이 이만(李慢), 이광정(李光庭)과 함께 김성탁을 안동부 훈장으로 초빙하여

44) 『琴易堂集』, 권 1, 시.

45) 『霽山集』, 「霽山先生年譜」, 숙종 24년 戊寅.

안동향교에서 강론하였다. 이 때 조현명이 향교를 방문하여 대학의 혈구장과 태극도설의 의심나는 부분을 토론하고, 조현명이 감영으로 돌아간 뒤에도 편지를 보내 의심나는 부분을 질문하였는데 이 때 서로 왕복한 서신이 7·8폭이나 되었다고 한다.<sup>46)</sup>

이상의 내용을 통해 16-17세기 강학의 전개상을 개략적이거나 확인할 수 있다. 첫째, 2대 원장을 역임한 권호문의 연보와 시문에 따르면 당시 강학의 제도가 체계화되지는 않았으나 16세기 강학은 ‘알묘례-강학-수창사’의 순서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둘째, 16세기 강학은 퇴계 저술의 교정 작업과 병행하여 시행되었으며, 강학과 교정은 때로는 일회적으로, 때로는 며칠씩 서원에서 유숙하면서 이루어졌다. 셋째, ‘누에 오르면 감발하는 효과가 있어 호연지기를 기르고 연비어락의 이치를 깨우치는 데 적합하다고 하여 강당인 숭교당 외에 유숙공간이었던 양호루가 강학 공간으로 자주 활용되었다. 이는 서원 강학이 ‘장수(藏修)와 유식(遊息)’을 아우르는 교육활동이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넷째, 강회록은 현전하지 않지만 배용길의 시문에 따르면 1593년 강회가 열렸고 강회록이 작성되었다. 다섯째, 남치리의 원규에는 동몽 강학에 대한 규정이 없으나 배용길이 16세기 강회에 참여할 때마다 ‘小兒와 함께 동몽제에 우거하였다’는 기록, 동몽제의 규모가 15칸이나 되었던 점, 또 18세기 김성탁이 15세의 나이로 호계서원 거첩에 참여하였다는 기록에 따르면, 16세기부터 15세 이하 동몽들을 대상으로 동몽제의 운영과 동몽 강학이 시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17세기 후반 김성탁이 ‘전례대로 수일간 거첩에 참여하여 과거문자를 익혔다’는 기록에 따르면 17세기까지 과업(科業)을 목적으로 한 거첩이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4. 18-19세기 강회의 심학적 특징과 실천적 학풍

위의 표 2에서 보듯이, 18-19세기에는 총 13차례의 강회 관련 기록이 확인된다.

<sup>46)</sup> 『齋山集』, 「齋山先生年譜」, 영조 6년 庚戌, 七年 辛亥, “遊虎溪書院 從多士 肄學子文 累居前列”.

1718년 6월에는 이재(李裁, 1657-1730)가 동주가 되어 권두경, 김창석, 권두기 등과 함께 강회를 열었다. 이 때 안동부사 권이진(權以鎭, 1668-1734)이 참석하여 무극태극, 사찰이기설에 대해 논변하였다.<sup>47)</sup> 권이진은 송시열의 외손이자 명재 윤증의 문인으로 윤증의 정밀함을 주장하며 사찰설에 대해 이재와 치열한 논변을 벌였는데, 강회가 끝날 때까지 논쟁이 결론을 맺지 못하자 강회를 마치고 돌아간 뒤에도 이재와 편지를 주고받으며 사찰설에 대한 토론을 벌였으나, 밀암집의 기록에 따르면 끝내 의견의 합치를 보지 못했다고 한다. 당시 이재와 권이진 사이에 벌어진 논변의 핵심은 권이진의 문집에 상세히 실려 있다.<sup>48)</sup>

1728년 7월에 열린 근사록 강회에는 김성탁, 이만(李旻, 1669~1734) 등이 참여하였다.<sup>49)</sup> 이만은 영해 재령 이씨, 갈암 이현일의 문인이자 조카로 18세기 초반 이재, 김성탁과 함께 호계서원의 강회를 주도적으로 이끈 인물이다.

1729년 강회는 춘향일에 개설되었다. 동주 이재의 주도로 향사를 행한 뒤 강회를 열어 이만, 김성탁, 이광정(李光庭, 1674-1756) 등 7인이 참석하였다.<sup>50)</sup> 강회를 과한 뒤 이재가 강회 참석자 7인과 함께 오로봉 삼소암을 유람하고 퇴계의 시에서 운자를 내어 다 같이 수창시를 지어 기록에 남겼다. 당시 이만은 대신 이상정(1711-1781)에게도 강회에 참석하라고 불렀으나 이상정이 사는 마을에 역병이 창궐하여 참석하지 못했다. 이후 이상정은 이만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내 참석하지 못한 안타까움과 강회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였다.

여강서원의 강회는 어떻게 결말이 났습니까? 선비들은 몇이나 모였으며, 강론한 책은 무엇이며, 몇 군데의 문의(文義)를 논란했으며, 또한 향상해 나갈 학업을 갖고서 책려할 만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동남 지역이 쇠락하고 쓸쓸한 이때에 이것이 제일가는 소식이어서 처음엔 명하신 대로 달려가서 평소에 따르고 싶었던 마음을 조금 펼치려 했습니다. 그러다 다시 생각건대 강회에 참석하는 여러 회원들은 태반이 역병을 꺼리는 사람입니다. 제가 두역이 창궐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터라 위태로움을 무릅쓰고 출입한다면 어찌 후회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행장을

47) 『密菴集』, 권 24, 「年譜」.

48) 『有懷堂集』, 권 7, 書, 「與李院長裁」.

49) 『霽山集』, 「年譜」.

50) 『密菴集』, 권 24, 부록, 「年譜」.

꾸러 출발하려다가 곧바로 멈춤으로써 한 번의 좋은 기회를 공연히 모두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겨주고 말았으니, 마음속의 서글프고 한스러움을 어찌 잠시라도 감히 잊을 수 있겠습니까.<sup>51)</sup>

여기서 이상정은 동남 지역이 쇠락하고 쓸쓸한 때에 호계서원에서 강회가 개최된다는 사실이 제일가는 소식이라며 강회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표명한 뒤, 어떤 책을 강론했고, 토론의 쟁점은 무엇이었으며, 누가 참석했고, 동지로서 함께할 만한 인제는 누구였는지 등 강회의 전말에 대해 매우 상세히 묻고 있다. 이는 당시 호계서원 강회가 안동지역 학자들에게 어떤 위상과 의미를 지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만의 문집 기록을 좀 더 꼼꼼히 검토해보는다면 이 때 강회 내용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혹 확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후속 연구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1731년에는 이만이 훈장을 맡아 강회를 열고 안동부 전체에서 미리 선발한 유생들을 대상으로 서명(西銘), 태극도설을 강론했다. 이 때의 강회는 경상감사 조현명의 흥학책 및 권학절목의 시행과 맥을 같이하여 시행된 것이었다. 조현명은 이광정에게 안동부의 도훈장을, 김성탁과 이만에게 훈장을 맡아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만은 감당할 그릇이 안 된다며 여러 차례 편지를 보내 거절하였으나 조현명이 거듭 청하자 결국 허락한 뒤 호계서원의 강회를 담당하였다. 그는 감사의 요청으로 「봉유제생문(奉諭諸生文)」을 지어 과거에 합격해 일신의 영달만을 꾀하는 당시 학문 풍조를 비판하고 공부의 목적과 방법을 제시한 뒤,<sup>52)</sup> 면훈장-도훈장-감영으로 이어지는 행정체제와 서원, 향교를 번갈아가면서 활용하고, 강학과 제술을 병행하는 권학 체제 및 강회 시 정음례 절차를 제시한 「학규」를 만들어 감사에게 주었다. 이 때 강회에서는 강론을 마친 뒤 미리 준비한 문목을 제시하여 유생들의 학습성적을 평가하였다. 강회를 마친 뒤 그는 선발 인원이 너무 적은 고을의 선류(善類)들을 제대로 불러 모으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하며 인원을 조금 늘리고 나이를 40세 이하로 할 것을 감사에게 제안하였다.<sup>53)</sup>

51) 『大山集』, 권 5, 書, 「答李顧齋」.

52) 『顧齋集』, 권 7, 雜著, 「奉諭諸生文」.

53) 『顧齋集』, 권 1, 書, 「答趙方伯」.

1765년에는 김택동(金宅東)이 동주로 강회를 열어, 강석에 이상정(1711-1781)을 모시고 윤2월 10일부터 17일까지 대학, 심경을 강론하였다. 강회에는 김낙행(金樂行), 김익명(金翼溟), 이상진(李象辰), 김굉(金坵), 유범휴(柳範休), 이우(李堉) 등 총 90여 명이 참석하였다. 11일까지 유생들이 모이기를 기다렸다가 12일에 본격적으로 알묘례와 정읍례, 상읍례를 행한 뒤 대학과 심경 강론을 시작하여 16일 저녁에 마쳤다. 마침 강회를 파한 날이 보름달을 볼 수 있는 기망일이라 강회에 참석한 수십명과 함께 오로봉 아래 배를 띄워 물길을 위아래로 거스르면서 경치를 감상하며 적벽부를 읊고 주자의 시에 차운하여 다함께 수창시를 지었다.<sup>54)</sup> 강회의 일정을 모두 마친 뒤 이 성대한 모임을 기록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여 참석자들의 성명을 소책자에 기록하여 「호계서원강회제명록(虎溪書院講會題名錄)」을 만들고 원중의 고사로 삼기 위해 서원에 비치해두었다. 또 이상진(李象辰, 1710-1772)이 호계서원강회제명록에 붙일 서문을 작성하였다. 서문에서 그는 강회의 전말을 간략히 기록한 뒤 강회에서 공부한 내용을 더욱 궁구하여 체득하고 일상생활의 언어와 동작에서 실천하는 자만이 진정한 ‘강학인’이라고 할 수 있다며 배움의 실질은 실천에 있음을 강조하였다.<sup>55)</sup> 이 제명록 외에 한국국학진흥원에 소장된 『여강기문록(廬江記聞錄)』에는 강회의 배경, 참석자들의 명단과 입회일, 정읍례와 상읍례의 세세한 의절부터 경독(敬讀), 강석(講席)을 설치하는 공간과 순서, 문답 내용에 이르기까지 당시 강회의 전말을 상세히 수록하고 있다. 특히, 1856년 호계강록에는 없는 정읍례의 의절을 매우 상세히 기록하였다.<sup>56)</sup>

1765년 이상정의 대학, 심경 강회 이후로는 20년이 넘도록 호계서원에서 강회가 열리지 못하다가, 1789년 마침 정래성(鄭來成)이 동주가 되어 일을 도모하고 이홍필(李弘弼), 김시인(金始寅)과 재정을 마련하여 심경강회를 개설하였다. 7월 16일 동암(東巖) 유장원(柳長源, 1724-1796)을 강석에 모시고 강회를 시작하여 7일 후에 파하였다. 김도행(金道行), 유낙문(柳洛文), 이우량(李宇亮), 김창수(金昌壽), 김이운(金履運)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하였다.<sup>57)</sup> 마지막 날에는 강회를 기념하여

54) 『大山集』, 권 3, 시, 「廬江講會 次韻詩」.

55) 『下枝遺集』, 권 4, 序, 「虎溪書院講會題名錄序」.

56) 『廬江記聞錄』, 한국국학진흥원.

57) 『訂窩集』, 권 20, 行狀, 「思軒集』, 권 1, 시, 「虎溪講會次韻」.

참석자들이 수창시를 돌려 짓고, 을유년(1765) 이상정의 심경 강회의 고사를 따라 제명록을 작성하였다. 또 이후 강회가 지속적으로 제도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강회의 진말을 담은 여강강회록을 작성하였다. 강회록은 이 때 강석을 맡은 유장원의 삼중손 유낙문이, 제명록은 이우량이 작성하였다고 하나 현재 자료의 행방을 알 수 없고, 제산 김성탁의 조카이자 문인이었던 김도행(1728-1812)이 지은 강회록의 후서(後書)만이 그의 문집에 남아있다. 후서에는 을유년의 강회 이후 20여년이 지나도록 강회가 열리지 못한 이유와 이 때 강회를 재개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강회의 의미와 성과, 향후에도 강회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호계서원이 이 고을의 흥학에 기여하고 장차 원근에 명성을 떨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다.<sup>58)</sup>

20여년 간 강회가 폐지된 배경은 을유년의 고사를 따라 원임들이 다시 강회를 재개하고자 번번히 마음을 먹었으나 차일피일 이루지 못하고 있었는데 마침내 1772년 이상정이 서거하자 비통함에 동력을 잃어버리고 강회가 아예 폐지되기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그러다가 한 해 전 당회에서 고을의 선비들이 모여 강학이 폐기된 일을 안타까워하며 몇 규약의 회복을 도모하고 서원의 여러 사람들에게 통문을 내어 강회의 시행을 독려하였다. 그러던 중 퇴계 문인이었던 정사성(鄭士誠)의 7대손이자 당시 전라도 도사 정래성(1744-1835)이 호계서원 동주를 맡으면서 강회를 재개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마련되었다. 현직에 있던 그는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고 이홍필, 김시인에게 섬학의 일을 관장하게 하여 마침내 강회의 재원을 마련하였다. 강회의 의미와 성과에 대해서는 ‘범문이 무너지고 스승의 가르침이 사라져 지역의 학자들이 경전을 끌어안고도 돌아갈 곳이 없다고 탄식해왔는데, 지금 유공이 성심으로 제생을 가르쳐서 어른이든 젊은이든, 어진이든 어리석은 이든 그 분량에 따라 각각 소득이 있게 하여 기쁘고 즐겁게 심복하여 돌아가도록 하였으니, 이것으로 이 선생이 끼치신 교화가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볼 수 있으며, 이 어찌 사문의 크나큰 행운이 아니겠는가’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급일 이후로 서원의 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앞서의 규약을 저버리지 말고 매번 이 강회를 설치하여 초학자를 인도하고 통솔하여 권면하는 방도를 다

58) 『雨阜集』, 권 5, 잡저, 「書廬江講會錄後」.

하여 이 고을의 흥학에 기여할 것을 당부하였다.<sup>59)</sup>

1801년 7월에는 이상정의 문인 김굉(金垞, 1739-1816)이 심경강회를,<sup>60)</sup> 1831년에는 소암(所庵) 이병원(李秉遠, 1774~1840)이 동주이자 동시에 강석을 맡아 강회를 열고 태극도설, 근사록, 중용, 대학혹문을 강론한 뒤 20일 만에 파하였다. 이때 32세의 김대진(金岱鎭)이 참여하였는데, 그가 '호계서원 거재에 피선(被選)되었고, 선발되어 모인 사람들은 모두 당시의 명석(名碩)들이었다'<sup>61)</sup>는 기록에 따르면, 당시 강회에는 특정 시험이나 절차를 거쳐 선발된 인원들만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때 강회의 문답 내용은 의성 김씨 출신이자 이병원의 문인 김대진(1800-1871)이 「여원강회문답차략(廬院講會問答筭略)」에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sup>62)</sup> 이 차략에 따르면, 김대진 외에 유치효(柳致孝), 유성문(柳聖文), 이상성(李相聖), 유치호(柳致皐), 유치복(柳致復), 김성전(金性銓) 등이 참여하였다. 이 때 김대진은 차략의 작성 뿐 아니라 스승 이병원과 더불어 참석자들에게 여러 차례 발문을 던지는 등 토론에서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의 죽인 김상수(金常壽)의 기록에 따르면, 김대진은 낮에는 강석에 나아가고 밤에는 함께 선발된 인사들과 사석에서 모여 토론을 이어갔다고 한다.<sup>63)</sup> 즉, 당시 강회는 서원에서 유숙하지 않고 참석자들이 날마다 서원에 오가며 낮에만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 20일이라는 비교적 장기간동안 강회가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공제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20일간의 강론을 마친 뒤에는 을유년 이상정의 심경강회 고사를 따라 이상정의 시에 차운하여 다함께 수창시를 지은 뒤 강회를 파하였다.

1856년에는 경상감사 신석우의 흥학책에 부응하여 유치명의 주도로 심경강회가 열렸고,<sup>64)</sup> 1863년 가을에는 64세 김대진이 훈장이 되어 서명(西銘) 강회를 열

59) 『雨臯集』, 권 5, 잡저, 「書廬江講會錄後」.

60) 『龜窩集』, 부록, 권 1, 「年譜」.

61) 『訂窩集』 권 1, 年譜, 순조 31년 신묘, “先生三十二歲 十一月 被選居齋于廬江書院 時所庵李先生主訓席 選集一方名碩”.

62) 『訂窩續集』, 권 2, 雜著, 「廬院講會問答筭略」.

63) 『訂窩集』 附錄 卷 2, 遺藁 金常壽, “先生晝則進講席間. 夜與同選諸人商確于私所”.

64) 상세한 내용은 권오영, 「19세기 안동유림의 학맥과 사상」, 2003, 『영남유림의 사상과 활동』, 둘째개; 최광만, 「19세기 서원 강학활동 사례 연구: 「호계강록」을 중심으로」, 2012, 『교육사

었다. 이 강회에서 서명(西銘)을 교재로 택한 것은 훈장 김대진이 당시 시대상에 부응하여 19세기 붕당의 폐해와 유림의 분열상을 극복하기 위한 해법을 서명에서 찾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위로 조정에서부터 아래로 여항에 이르기까지 붕당의 습속과 남을 시기하고 이기려는 사사로운 마음이 고질적인 폐단에 달한 당시 사회상을 비판하며 돌아가서도 이번 강회에서 공부한 이일분수(理一分殊)의 의미를 더욱 되새기고 일상의 현실에서 착실히 실천할 것을 유생들에게 당부하였다.<sup>65)</sup>

1891년 5월에는 김흥락(金興洛)이 옥산강의(玉山講義) 강회를 열고,<sup>66)</sup> 1892년 2월 15일에도 여강강회(廬江講會)가 열렸다는 기록이 있다.<sup>67)</sup>

이상의 내용을 통해 18-19세기 호계서원 강회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8세기 후반으로 가면서 ‘알묘례-정읍례-상읍례-강독, 발문, 토론-강회 후 산수 유람-과제 시 수창시’의 순서로 강회의 절차와 방식이 체계화되었으며, 1765년 대산 이상정이 이끈 심경강회를 기점으로 강회 참여자의 명단과 강회의 전달, 문답 내용을 제명록, 차록, 강회록 등의 기록으로 남기는 관례가 정착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1731년과 1856년의 강회에서 보듯이 지방관의 흥학책에 의해 강회의 계기가 마련되고 서원에서는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강회가 활성화되었다. 셋째, 18-19세기 호계서원 강회를 통해 ‘퇴계로부터-학봉 김성일-갈암 이현일-밀암 이재-대산 이상정’으로 이어지는 학맥의 형성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위의 표 2에서 보듯이, 18세기 초반부터 19세기까지 동주나 훈장으로 강석(講席)에 앉아 실질적으로 강회를 주도한 인물들의 사승관계를 분석해보면 이를 알 수 있다. 먼저 18세기 초반 강회를 주도한 이재, 이만, 김성탁은 모두 갈암의 문인이었고, 18세기 중반 강회를 이끈 대산 이상정은 밀암의 문인이자 손자, 갈암의 외증손이었다.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까지 강회를 주도한 인물 중 유장원과 김굉은 이상정의 문인, 이병원은 이상정의 문인이자 손자였으며, 유치명은 이상정의 외증손, 김대진은 이병원의 문인, 김흥락은 유치명 문인이었다. 넷째, 18-19세기에 가장 많이 활용된 강회의 주요 텍스트는 심경이며, 강회에서 공부한 내용을 더욱 궁구하여

학연구』 22권 1호, 교육사학회 참조.

65) 『訂窩集』, 附錄 권 1, 年譜, 철종 14년 계해.

66) 『西山先生文集』, 부록, 권 1, 「年譜」.

67) 『日記』, 광산김씨 유일재종택,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체득하고 일상생활의 언어와 동작에서 실천하는 자만이 진정한 ‘강학인’이라 강조한 18세기 강회, 19세기 봉당의 폐해와 유림의 분열상을 극복하기 위한 해법을 서명에서 찾고 일상에서 이일분수의 실천을 강조한 19세기 강회 등을 통해 이 시기 호계서원 강회의 특징과 경향성이 심학과 실천적 학풍을 지향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5. 결론

이상에서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조선시대 호계서원 강학활동의 전체적인 흐름과 변화상을 추적하였다. 2장에서는 퇴계 문인들에 의해 건립된 호계서원이 퇴계의 서원관과 도학론을 충실히 계승하는 한편, 당시까지 매우 부진했던 안동향교의 교육기능을 대신하여 관학에 버금가는 위상과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퇴계의 이산원규를 충실히 계승하면서도 입원 규정에서만은 과거 입격자를 우선으로 규정한 호계서원의 원규, 안동부 및 안동향교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속에서 설립, 운영되었으며 호계서원의 주요 인물들이 16세기 안동향교의 운영까지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17세기까지의 강학이 과업(科業)을 목적으로 한 거점 중심으로 시행되었고, 완공된 건물의 규모가 관학의 규모를 훨씬 능가하고 있다는 점 등을 통해 적어도 16세기의 호계서원은 관학에 버금가는 위상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3장에서는 16-17세기 강학의 전개상을 개략적으로 검토하였다. 16세기에는 강학과 관련된 상세한 기록은 발견되지 않지만 시문과 연보, 행장 등에 나타난 단편적인 기록을 통해 동몽재의 운영상, 강학에 활용된 공간, 서원에서 이루어진 퇴계 저서의 교정 작업과 연계하여 시행된 강학, 강학에 앞서 시행된 알묘례, 강학을 마칠 때 남긴 차운시 등 16세기 강학과 관련된 정보를 부분적으로 확인하였다. 먼저, 권호문의 문집 기록을 통해 당시 강학의 제도가 체계화되지는 않았으나 16세기 강학은 ‘알묘례-강학-수창시’의 순서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또 16세기 강학은 퇴계 저술의 교정 작업과 병행하여 시행되었으며, 강학과 교정은 때로는 일회적으로, 때로는 며칠씩 서원에서 유숙하면서 이루어졌음을 보았다. 또 ‘누에

오르면 감발하는 효과가 있어 호연지기를 기르고 연비어락의 이치를 깨우치는 데 적합하다고 하여 강당인 승교당 외에 유식공간이었던 양호루가 강학 공간으로 자주 활용되었으며, 이는 ‘장수(藏修)와 유식(遊息)’을 아우르는 교육활동으로서 서원 강학의 목표와 의미를 드러내는 대목임을 지적하였다. 남치리의 원규에는 동몽 강학에 대한 규정이 없으나 배용길이 16세기 강회에 참여할 때마다 ‘소아(小兒)와 함께 동몽재에 우거하였’으며 동몽재의 규모가 15칸이나 되었다는 점, 또 18세기 김성탁이 15세의 나이로 호계서원 거절에 참여하였다는 기록에 따르면, 16세기부터 15세 이하 동몽들을 대상으로 동몽 강학이 시행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17세기 후반 김성탁이 ‘전례대로 수일간 거절에 참여하여 과거 문자를 익혔다’는 기록에 따르면 17세기까지 과업(科業)을 목적으로 한 거절이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4장에서는 18세기 후반으로 가면서 ‘알묘례-정음례-상읍례-강독과 발문, 토론-강회 후 산수 유람-파재 시 수창시’의 순서로 강회의 절차와 방식이 체계화되었으며, 1765년 대산 이상장이 이끈 심경강회를 기점으로 강회 참여자의 명단과 강회의 전말, 문답 내용을 제명록, 차록, 강회록 등의 기록으로 남기는 관례가 정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 지방관의 흥학책과 그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 18-19세기의 강회가 활성화되었으며, 18-19세기 호계서원 강회를 주도한 인물들의 사승관계 분석을 통해 호계서원 강회는 ‘퇴계로부터-학봉 김성일-갈암 이현일-밀암 이재-대산 이상장’으로 이어지는 학맥 형성에 핵심적인 매개체가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18-19세기에 가장 많이 활용된 강회의 주요 텍스트는 심경이었으며, 강회에서 공부한 내용을 더욱 궁구하여 체득하고 일상생활의 언어와 동작에서 실천하는 자만이 진정한 ‘강학인’이라 강조한 18세기 강회, 19세기 봉당의 폐해와 유림의 분열상을 극복하기 위한 해법을 서명에서 찾고 일상에서 이일분수의 실천을 강조한 19세기 강회 등을 통해 이 시기 호계서원 강회의 특징과 경향성이 심학과 실천적 학풍을 지향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관련 자료를 최대한 수집, 검토하여 기준에 밝혀지지 못한 호계서원 강학의 전체적인 흐름과 변화상은 개괄적으로 추적하였으나, 연구자의 역량의 한계로 강학의 가장 핵심에 해당하는 강회의 주요 내용과 문답 기록까지는 미처 분석하지 못하였다. 본고에서 수집한 자료 외에도 관련 인물들의 문집

중 특히 편지글을 꼼꼼히 찾아보면 당시 강회의 주요 쟁점과 문답 기록을 좀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관련 자료를 좀 더 추적, 보완하여 본고에서 미처 분석하지 못한 강회의 주요 내용과 문답 기록은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廬江記聞錄』,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江左集』

『顧齋集』

『顧齋集』

『龜窩集』

『琴易堂集』

『大山集』

『廬江志』

『密菴集』

『栢巖集』

『賁趾先生文集』

『西山先生文集』

『雪月堂集』

『松巖集』

『숙종실록』

『永嘉誌』

『雨臯集』

『月川集』

『惟一齋先生實記』

『有懷堂集』

『日記』,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訂窩集』

『霽山集』

『下枝遺集』

『鶴峯集』

『虎溪任錄』

- 권오영, 「19세기 영남유림의 사상적 동향」, 『민족문화논총』 제70집, 2018.
- \_\_\_\_\_, 「19세기 안동유림의 학맥과 사상」, 『영남유림의 사상과 활동』, 돌베개, 2003.
- \_\_\_\_\_, 「19세기 영남유림의 강회와 학술활동」, 『조선시대 사회의 모습』, 집문당, 2003.
- 김명자, 「조선후기 安東 河回의 豊山柳氏 門中 연구」, 경북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9.
- 김자운, 「퇴계의 서원관과 조선후기 소수서원 講學의 변화」, 『퇴계학논집』 제18호, 2016.
- 김학수, 「廬江書院과 嶺南學統-17세기 초반의 廟享論議를 중심으로-」, 『朝鮮時代의 社會와 思想』, 조선사회연구회, 1998.
- 김형수, 「조선후기 영남지역 여론 형성과 정치참여: 통문과 상소」, 『조선시대 고문서 자료집(I)-통문과 상소-』, 한국국학진흥원, 2007.
- 설석규, 「퇴계학파의 分化와 屏虎是非(I)-屏派·虎派의 세계관 형성과 분화」, 『한국사상의 재조명』, 한국국학진흥원, 2007.
- \_\_\_\_\_, 「退溪學派의 分化와 屏虎是非(II)-廬江(虎溪)書院 置廢 顛末-」, 『退溪學과 韓國文化』 45, 2009.
- 申奭鎬, 「屏虎是非に就いて」, 『靑丘學叢』 1~3, 1931.
- 안승준, 「자료소개-安東鄉校 學規類」, 『고문서연구』 제6집, 한국고문서학회, 1994.
- 이재현, 「순조(純祖)대(1800~1834) 안동지역(安東地域) 유림(儒林)의 정치적 동향」, 『퇴계학과 유교문화』 59,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16.
- 정만조, 『朝鮮時代 書院研究』, 집문당, 1997.
- 정순우, 「조선조 영남 지역 교생신분과 평민층의 교육참여」, 『한국문화사대계』, 영남대학교 출판부, 2000.
- 최광만, 「19세기 서원 강학활동 사례 연구: 『호계강록』을 중심으로」, 『교육사학연구』 22권 1호, 교육사학회, 2012.

**[Abstract]**

## A Study on the Status and Education of Hogye-Seowon in the Joseon Dynasty

Kim, Ja-Woon\*

Hogye-Seowon(虎溪書院) is the first Seowon established in Andong area to celebrate Toegye because it was a place where Toegye was reading when he was a child. After the 17th century, it has grown into a representative Seowon in the Yeongnam region along with Dosan-Seowon and Oksan-Seowon. Paying attention to the status of Hogye-Seowon, many studies have been conducted in the field of political history. However, there are only two thesis on education in the 19th century on the study of Hogye-seowon education. This is because there is little data on education of Hogye-Seowon. Therefore, I tried to trace the overall flow and changes of Hogye Seowon education from the 16th century to the 19th century by investigating the data on Hogye-Seowon education as much as possible.

In Chapter 2, I first analyzed the operating regulations of Hogye-Seowon, and then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Andongbu(安東府) and Hogye-Seowon. In 1576, Nam, chi-ri(南致利) created the operating regulations of Hogye-Seowon, imitating Toegye's Isan-Seowon regulations. However, there are obvious differences between the two. In addition, Hogye-Seowon was established and operated in a very close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Andongbu. Through the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Chapter 2 I confirmed that the 16th century Hogye-Seowon played the same status and role as the Andong-Hyanggyo.

In Chapter 3, I reviewed the educational activities of Hogye-Seowon from the 16th

---

\* Kongju Natl. Univ. / jaunkim@hanmail.net

century to the 17th century. Through this, the operation status of children's education, the space used for education, the contents of education and the education method were confirmed.

In Chapter 4, I reviewed the changes in the educational system of Hogye-Seowon, the changes in textbooks and educational philosophy, and the formation process of the school from the 18th century to the 19th century. Hogye-seowon's educational system began to change systematically starting with the Simkyung-Lecture(心經講會) led by Daesan(大山) Lee, Sang-jung(李象靖) in 1765. And in the 18th and 19th centuries, the book they studied hardest at Hogye-Seowon was Shimkyung(心經). In addition, the teachers at Hogye-Seowon put great emphasis on practicing what they learned in Seowon in their daily life. In other words, the characteristics of Hogye-Seowon education in the 18th and 19th centuries can be found in the learning of the mind and practical academic practices. Through the education at Hogye-Seowon, the people who led the schooling were forming a academic network leading to “Toegye Lee Hwang(退溪 李滉)-Kim, Seong-il(金誠一)-Lee, Hyun-il(李玄逸)-Lee, jae(李栽)-Lee, Sang-jeong(李象靖)”.

**Keywords:** Yeogang-Seowon, Hogye-Seowon, education, Andong-hyanggyo, Andongbu, Toegyehak, Daesan Lee, Sang-jeong

❖ 논문투고일 : 2021년 4월 15일, 심사일 : 2021년 4월 30일, 게재확정일 : 2021년 5월 12일